

문자 연구에 관한 몇 가지 논점 -문자의 종류와 개념에 대한 인식-

연 규 동 (연세대)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문자의 일반 이론에 대한 연구서는 아주 드물다. 기껏해야 개론서에서 문자론이라는 이름으로 한 장 정도가 언급된 정도이며 심지어는 이조차도 따로 다루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자’를 주제로 검색되는 학위 논문도 몇 편 되지 않는다. 한글이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문자를 가진 나라로서 문자에 대한 이러한 소홀함은 다소 의외라고 할 정도이다. 게다가 문자의 종류 및 개념도 논저에 따라 제각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용어도 통일되지 않았으며 문자의 발달 단계를 기술하는 방식도 논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러한 사실은 문자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하여 아직 통일된 이론이 없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짧은 글에서는 문자의 종류를 중심으로 해서 문자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주요한 언어학 개론서에 수록된 여러 문자의 종류에 대한 기술을 한 자리에 모아 검토한 후 이를 기반으로 몇 가지 논점에 대해 가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이 앞으로 문자에 대한 일반 이론을 형성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¹⁾

2. 문자의 종류와 개념

2.1. 그림문자

2.1.1. 개념과 논점

1) 본고에서 살펴본 논저들을 발간 연도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인용할 때에는 해당 저서의 저자명과 관련 쪽수만을 제시한다.

허웅(1981), 『언어학 -그 대상과 방법』, 샘문화사
김진우(1985), 『언어 -그 이론과 응용』, 탑출판사
김방한(1992),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 개정판, 학연사
강범모(2005), 『언어 -풀어쓴 언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강옥미(2009), 『언어여행』, 태학사
박창원(2011), 『한글박물관』, 책문

인류가 언제부터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초의 문자는 그림에서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림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문자로 발달하게 된다. 그림문자²⁾를 아직 문자가 아닌 문자 이전 단계의 것으로 볼 것인가 문자의 하나로 볼 것인가에 따라 국내의 여러 논저들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

- (1) a. 초기 단계의 문자로 보는 경우 : 김진우, 김방한, 박창원
- b. 문자 이전 단계로 보는 경우 : 허웅, 이익섭, 강범모, 강옥미

그림문자를 공동체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림과 구분하여 문자로서 파악하는 입장이 전자의 것이라면, 그림문자는 문자가 하는 일과 비슷한 역할을 할 뿐이지 아직 진정한 의미의 문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후자의 것이다. 기존의 국어사전에서도 그림문자는 문자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 (2) a. 그림이나 대상을 본뜬 도안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 체계 <표준>³⁾
- b. 문자의 발생 초기에, 그림이나 도안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던 문자 체계 <고려>⁴⁾

그림문자가 문자의 이전 단계이나 혹은 문자이냐의 문제는 그저 정의의 문제일 뿐 그다지 중요한 논점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문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도 ‘문자’라는 용어를 불임으로서 마치 문자의 일종인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문제는 문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되어서 논의할 바가 있다고 하겠다.

2.1.2. 문자의 속성 및 정의

문자의 1차적인 속성은 시각적이다. 입과 귀를 이용하는 의사소통을 음성언어라고 하면, 손과 눈을 이용하는 의사소통을 문자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 <표준>의 정의이다.

- (3)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인 기호 체계 <표준>

하지만, 문자의 정의에 시각성만을 강조한다면, 이른바 그림문자는 물론 원시적인 그림까지도 모두 문자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어려움에 빠진다. 따라서 문자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문자의 2차적 속성이 필요하며, 이를 “언어의 어떤 단위와 긴밀한 대응 관계”

2) 논저에 따라 ‘회화문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3)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사전>은 온라인 사전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http://dic.daum.net/index.do?dic=kor> (2014년 4월 30일 접속)
4) 본고에서 다른 서적을 인용할 경우 내용의 일부만 인용할 경우 빠진 부분에는 ‘...’를 사용하여 나타냈지만, 앞부분 전체 또는 뒷부분 전체가 빠지는 경우에는 굳이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익섭 214), “공동체가 인식할 정도의 일관된 형식”(박창원 68)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긴밀한 대응”이나 “일관된 형식”이라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이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기는 한다. 양 그림을 보고 공동체가 모두 양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만으로도 문자라고 볼 것인가, 양 그림이 “양이 한 마리 있다”라거나 “양을 잡아 먹자” 등과 같이 문맥에 따라 바뀐다면 문자로서 볼 수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부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발화와 인식의 단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어떤 기호가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기호를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음성으로 바꾸고,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자 이전 단계에 시도되었던 다양한 방법들도 모두 어느 정도는 일정한 개념을 공유했지만, 이를 문자로서 볼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글자가 글자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 언어기호를 표기해야 하는 것”(허용 315)이다. 다음 정의는 문자가 인간의 언어와 관련을 맺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4) 말을 눈으로 읽을 수 있게 나타낸 기호 <고려>

따라서 시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그림문자 및 그림이 진정한 의미의 문자가 될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읽는 이에 따라 음성으로 바뀌는 결과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의미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언어기호’와의 관련성과 더불어서 앞서 살펴본 “긴밀한 대응” 또는 “일관된 형식”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문자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⁵⁾

- (5) a. 인간의 말을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나타낸 기호
- b. 인간의 음성언어를 시각적인 기호로 일관성 있게 바꾸는 체계

2.2. 상형문자

2.2.1. 개념과 논점

상형문자는 다음과 같이 논저마다 정의 및 기술이 아주 크게 달라지고 있는 개념이다.

- (6) a. 한 낱말-엄격하게는 한 형태소-의 풀 있는 지시대상을 관습화한 그림으로 표시한 글자 (허용 312)
- b. 사물의 형태나 또는 어떤 성질을 강조하면서 … 그 사물을 선이나 점으로 그려서 표시하는 것 (김방한 251),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들 글자 (이익섭 216)
- c. 이집트 문자 (김진우 294, 강범모 195-196, 강옥미 291)

우선 (6a)는 앞부분은 단어문자와, 뒷부분은 상형문자와 관련 있는 기술로서 이 두 종류의 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기술이다. (6b)는 상형문자는 물론 그림문자에도 해당될 수 있는 기술이다. 실제로 김방한(251)에서는 상형문자와 그림문자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익섭(214, 216)에서 그림문자를 picture writing으로, 상형문자를 pictographic

5) 이러한 정의는 철저하게 언어학적인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 및 대안에 대해서는 최근 다른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연규동(Gyudong Yurn)(2014) 참고.

writing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영어사전에서 pictograph, pictographic을 ‘그림문자, 상형문자’라고 풀이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6c)는 주로 외국 서적에서 상형문자를 hierograph 또는 hieroglyphic writing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히에로글리프는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특정 문자를 가리키는 이름일 뿐이다. 외국서적에서 상형문자를 설명하면서 hieroglyphic writing 등을 사용한 것은 서양인들에게는 익숙한 상형문자가 이집트 문자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형문자라는 단어로써 이집트 문자만을 의미하는 일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 서적을 번역할 때 등장하는 hierograph 등 역시 문맥에 따라서 이집트 문자(또는 성각문자)와 상형문자로 구분하여 번역하여야 된다.

(6a, b)에 보이는 혼란은 상형문자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에서도 반복된다.

- (7) a. 물건의 모양을 본떠 만든 회화 문자에서 발전하여 단어 문자로 된 것으로, 원형과의 관련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문자 <표준>
- b. 그림에서 성립되었다고 보는 표의 문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고려>

(7a)는 상형문자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발전 과정을 주로 기술한 정의로서, “물건의 모양을 본떠 만든”과 “원형의 관련이 조금이라도 보이는”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림문자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은 기술이다. (7b)의 기술 역시 상형문자가 그림문자 및 표의문자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

2.2.2. 문자의 제자 원리

상형문자는 문자의 발달 단계 중 하나도 아니며, 특정 문자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없다. 상형문자는 특정 시기에 사용되거나 발달한 문자가 아니라 문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가 상형문자이지, 통시적·공시적인 문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박창원(69)의 기술이다. 여기서는 상형문자는 개념상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 개념을 “제자의 방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림 및 이른바 그림문자는 물론, 초기 단계의 단어문자는 대부분 상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기원전 3100년경의 수메르 문자, 기원전 3000년경의 이집트 문자, 기원전 1500년경의 한자 등 인류 최초의 문자들은 인류 문명 발상지 여기저기에서 생겨나는데, 모두 상형의 원리로서 만들어진 문자들이다. 한자 중에서도 육서 중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600여 개의 한자만을 상형문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한글도 자음 글자 5개, 모음 글자 3개가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음은 익히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상형문자는 그림문자 및 표의문자 또는 단어문자 등과는 다른 차원의 기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널리 알려진 한자의 육서(六書)를 굳이 한자의 제자에만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 이들은 모두 문자의 제자 원리로서 설명할 수 있다.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상형(象形)문자, 지사(指事)문자의 의미가 확장되면 전주(轉注)문자가 되며, 두 문자의 의미가 결합하여 회의(會意)문자가 만들어진다. 또한 소리를 이용하여 동음이의어를 활용하면 가차(假借)문자가 되며, 의미와 소리를 모두 활용한 형성(形聲)문자가 생겨나는 것이다.⁶⁾

2.3. 표의문자

2.3.1. 개념과 논점

표의문자에 대한 기술 역시 논저마다 조금씩 다르다.

- (8) a. 그림문자의 형체가 간소화하면서, 사물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과 관련된 개념들도 표시하게 되는 시기의 문자 (김진우 291-293, 강범모 188)
- b. 상형문자가 발달하여 표의문자가 된다. 해 모양을 나타내는 문자가 日이 되면 표의문자가 된다 (김방한 251)
- c. 뜻을 나타내는 문자 (이익섭 219)
- d. 사물의 형상이나 행위의 특징을 상형화한 것 (박창원 74)
- e. 해 그림이 ‘해’라는 의미를 가지면 그림문자이지만, ‘낮, 따뜻함, 빛, 열’을 나타내면 표의문자이다. 또한 도상기호가 표현하는 내용이 단어 이상의 구나 문장 단위를 나타내면 표의문자이다 … 표의문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문자가 아니다 … 기호가 단어 이상의 구나 문장 단위를 나타내어야 표의문자이므로 한자는 표의문자가 아니다 (강옥미 288-299)

(8a)에 의하면 표의문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진다.

첫째, 모양이 단순화하여 사물과의 유사성이 약화된다.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문자는 점차 획이 간략화되어 ‘그리는’ 단계를 벗어나 ‘쓰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형태가 단순화되면 그 모양은 원래 지시 대상에서 차츰 멀어지게 되지만 원래 실제 모습과의 유연성을 잃게 되어도 문자로서 기능을 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 (8b)는 이 같은 속성만을 기술한 것이다. 둘째, 첫 번째 속성의 결과, 사물과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을 표시하게 된다. 이를테면 ‘해’를 가리켰던 문자가 ‘빛, 열, 낮’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8c) 및 (8d)의 “행위의 특징”, (8e)의 앞부분의 기술 또한 이런 속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8d)에서 기술된 “사물의 형상 … 을 상형화한 것”이라는 표현은 상형의 원리와 관련된 것이며, (8e)의 뒷부분에 반복되어 기술되어 있는 “단어 이상의 구나 문장 단위를 나타내어야 표의문자”라는 설명은 그림 및 이른바 그림문자 단계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동의 여지가 있다.

국어사전에서의 기술 또한 이와 같은 여러 논저들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 (9) a. 하나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 고대의 회화 문자나 상형 문자가 발달한 것으로 한자가 대표적이다 <표준>
- b. 사물의 형상을 본뜨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하나의 글자가 낱말의 뜻을 가지는 문자. 그림 문자, 상형 문자, 한자 따위가 있다 <고려>

6) 허용(316)에는 형성글자, 가차글자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이익섭(219)에서도 단어문자의 제자 방식으로 한자의 육서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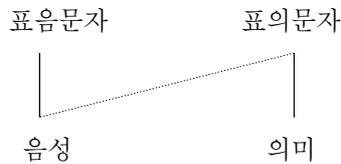
2.3.2. 문자와 언어의 이원성

표의문자의 첫 번째 속성인 ‘모양의 단순화’는 어떤 문자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다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속성인 ‘추상적 개념’은 원칙적으로 문자의 생성 원리인 전주(轉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즉, 기호의 모양과 의미가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문자의 발달 단계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보리 이삭 그림이 농사일을 의미하고, 산 그림이 ‘경계, 낮은 땅, 이국, 이방인’을 나타낸다거나, 사자 그림이 ‘힘, 용맹함, 살육, 공포, 폭군’ 등을 나타내는 것 등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표의문자의 특징이라고 알려져 온 것들이 표의문자의 정곡을 짚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표의문자가 뜻만 나타낼 뿐이지 음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표적인 표의문자라고 알려져 있는 한자를 놓고 생각하여 보자. 江, 山을 보고 한자를 사용하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들을 각각 ‘강, 산’으로 읽고, 중국에서는 ‘지양(jiāng), 산(shān)’으로, 일본에서는 ‘코(こう), 산(さん)’으로 읽는다면 이들이 음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앞선 논저에서도 기술되어 있다.

- (10) a. 중국 글자도 뜻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니피에-시니피앙의 결합인 낱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글자인 이상, 시니피앙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허용 315)
- b. 어떤 음가를 가진다 ... 그리고 음과 뜻 어느 쪽을 대표하는 기능이 더 큰가 하면 뜻 쪽이라고 할 수 있다 ... 뜻을 대표하는 일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자다 (이익섭 219-220)

표의문자 역시 상형문자와 마찬가지로 문자의 발달 단계에 있는 문자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인간의 언어는 음성과 의미라는 두 요소로 구분된다. 표음문자와 표의문자의 구분은 문자의 시각적인 속성을 통해 언어의 어떤 요소가 먼저 인식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다. 문자를 통해 언어 형식인 음성만을 나타낼 수 있다면 표음문자이고, 문자를 통해 언어 내용인 의미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언어 형식인 음성까지 인식할 수 있다면 표의문자인 것이다.



표의문자는 의미와는 1차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음성과는 2차적으로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문자이며, 표음문자는 음성하고만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문자이다. 즉, 표의문자는 문자 안에 의미를 나타내는 정보가 있지만, 표음문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정보가 문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림(또는 그림문자)이나 상형문자에서 변한 것이 표의문자가 아니라, 그림(문자)이든, 상형문자, 단어문자이든, 숫자나 수학 연산기호이든 모두 의미가 곁에 드러나 있으면 표의문자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표의문자는 상당히 폭넓은 개념을

가진 문자이며,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크게 기술적인 혼란을 낳지 않는다.⁷⁾

2.4. 단어문자

2.4.1. 개념과 논점

단어문자 자체는 문자의 발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그다지 논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단어문자와 표의문자와의 관계를 논한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 (11) a. 표의문자와 관련된 개념 (허웅 315-317)
- b. 그림문자와 표의문자를 합한 개념 (김진우 291-293)
- c. 상형문자(그림문자)와 표의문자를 포함하는 개념 (김방한 251)
- d. 표의문자와 동일한 개념 (이익섭 1985:219, 강범모 188)

위 기술을 살펴보면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단어문자는 표의문자와 연관시켜서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표의문자는 인간의 언어를 구성하는 두 요소 즉, 의미와 음성이 문자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단어문자는 언어 단위를 반영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표의문자와 단어문자는 같은 차원의 분류가 될 수 없다.

2.4.2. 용어의 확립

단어문자에 대한 역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보인다. 단어문자에 대하여 logogram이라는 역어를 쓸 것인가 아니면 word writing이라는 역어를 쓸 것인가의 차이이다.

- (12) a. logogram cf. ideogram(표의문자) (허웅 315, 김진우 293, 김방한 251, 강범모 188, 강옥미 289)
- b. word writing cf. logographic writing, ideographic writing(표의문자) (이익섭 214)

일반적으로 로고그램(logogram)은 단어문자는 물론 ‘숫자, 연산기호, %, \$’과 같은 기호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숫자, 연산기호 등과 같은 도상적 기호와 중국의 한자와 같은 단어문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자 등과 같은 단어기호에서는 하나의 기호가 개별 단어를 나타내며 언어 단위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고그램은 넓은 의미에서 단어문자이기도 하지만, 모든 단어문자가 로고그램은 아닌 것이다. 주로 서양 서적에서 도상적 기호와 한자와 같은 단어문자를 모두 로고그램으로 칭하게 된 것은 한 개의 한자가 숫자나 다른 기호들과 마찬가지로 한 글자가 한 단어로써 사용된다는 속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영어 사전에서 logogram을 주로 기호나 약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참고된다.

7) “뜻글자란 이름은 좀 적당하지 않다”는 허웅(315)의 기술도 참고된다.

또한 단어문자를 표어(表語)문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단어문자를 표의문자, 표음문자와 같은 층위의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를 낳으므로 매우 불합리하다(배보은 2009:209 참고).

2.5. 문자의 분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금까지 우리는 그림문자, 상형문자, 표의문자, 단어문자 등이 논저에 따라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왔음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자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기술하려고 했기 때문이다.⁸⁾ 우리는 잠정적으로 문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술할 것을 제안한다.

- (13) a. 언어요소에 따른 분류 : 표의문자, 표음문자
- b. 생성 원리에 따른 분류 : 상형문자, 형성문자 등
- c. 언어단위에 따른 분류 : 단어문자, 음절문자, 음소문자 등
- d. 발음되는 언어단위에 따른 분류 : 단어-음절문자, 자음-음절문자 등
- e. 계통적 분류 : 이집트문자, 설형문자, 한자, 가나, 한글 등

2.5.1. 문자가 표상하고 있는 언어요소에 따른 분류

표의문자는 하나의 글자가 의미를 직접 나타내는 문자이다. 문자 이전 단계에 사용되던 매듭, 그림 등 역시 표의문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가 표의문자적 속성이 가장 높으며, 지사, 전주, 회의의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들도 표의문자적 속성을 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표의문자가 단어문자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단어문자는 모두 표의문자이다. 또한 모든 표의문자가 다 상형문자는 아니지만, 상형문자는 모두 표의문자이다.

표음문자는 하나의 글자가 소리를 직접 나타내는 문자이다. 형성 및 가차의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들이 표음문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음절문자, 음소문자, 자질문자는 모두 표음문자이다.

2.5.2. 문자의 생성 원리에 따른 분류

이 분류는 주로 단어문자가 확장하면서 적용된다. 인간의 언어의 두 요소가 의미와 음성 이므로 각각 의미를 중심으로 문자를 생성하느냐 음성을 중심으로 문자를 생성하느냐에 따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미를 중심으로 문자를 생성하는 원리에는 물체의 모양을 본떠서 문자를 만드는 상형의 원리, 사물의 위치나 수량을 가리키는 모양으로 문자를 만드는 지사의 원리, 글자의 뜻을 확대, 발전시켜서 문자를 만드는 전주의 원리, 둘 이상의 글자의 모양과 뜻을 합하여 문자를 만드는 회의의 원리가 있으며,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들은 표의문자적인 속성을

8) 배보은(2009:210)에서도 글자의 1차 층위와 2차 층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배보은(2013:53)에서는 이를 각각 표상의 대상, 표상의 언어단위라는 개념으로 기술한다.

가지게 된다.

또한 음성을 중심으로 문자를 생성하는 원리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와 음을 나타내는 글자를 합하여 문자를 만드는 형성의 원리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음을 가진 글자를 빌려서 문자를 만드는 가차의 원리가 있으며,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들은 표음문자적인 속성을 가지게 된다.

2.5.3. 문자가 표상하고 있는 언어단위에 따른 분류

인간의 언어단위를 문장, 구, 단어, 형태소, 음절, 음소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 중 각 단어와 음절, 음소를 표상하는 문자들이 발달하였다.

단어문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는 문자이다. 초기 단계의 한자, 이집트문자, 설형문자 등이 모두 단어문자이며, 현대에 사용되는 로고그램, 아이콘 따위도 넓은 의미로 보아 단어문자적인 속성을 가진다. 단어문자가 모두 상형의 원리를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상형의 원리를 따르는 문자는 단어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절문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일본의 가나 문자, 구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음소문자는 하나의 글자가 한 개의 소리(음소)를 나타내는 문자로서, 자음과 모음을 나타내는 문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자음문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자음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음소문자와 다른 점은 모음을 나타내는 기호가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자음문자로 쓰인 글을 읽을 때에는 읽는 이가 문맥에 따라 추론을 하여 모음을 넣어서 읽는다. 흔히 아브자드(abjad)라고 불린다.

자음-부가모음문자는 자음과 내재적인 모음을 함께 나타내는 문자에 부가적인 모음 기호를 덧붙인 문자이다. 흔히 아부기다(abugida)라고 불린다.

2.5.4. 문자가 발음하는 언어단위에 따른 분류

현재까지 알려진 단어문자, 자음문자 등은 문자가 표상하고 있는 언어단위와 관계없이 실제 그 문자를 소리 내어 읽을 때에 대부분 음절 단위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명칭도 가능하다.

(14) 단어-음절문자, 자음-음절문자 등

대표적인 단어문자인 한자로서, 단어-음절문자를 포함한 여러 문자 개념을 설명하여 보기로 하자. 이를테면 한자 山은 이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서는 통시적으로 상형의 원리를 따랐고, 소리보다는 의미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표의문자에 속한다. 이 글자 하나만으로 중국에서 하나의 단어를 표상하고 있으므로 단어문자이며, 또한 이 문자를 읽으면 결과적으로 san이라는 하나의 음절로 읽게 된다는 의미에서 공시적으로는 단어-음절문자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자가 언제나 단어-음절문자의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東西(‘물품, 물건, 음식’이라는 뜻)를 이루는 한자 東은 이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의하면 상형의 원리를

따랐고, 소리보다는 의미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표의문자에 속한다. 이 글자만으로는 ‘물품, 물건’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dōngxi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음절만을 표상하므로 음절문자이며, 이 문자를 읽으면 dōng이라는 음절을 표상하게 된다.⁹⁾

3. 결론

참고문헌

- 강범모(2005), 『언어 -풀어쓴 언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 강옥미(2009), 『언어여행』, 태학사.
- 겔브(Gelb, I. J.)(1962), A Study of Wri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연구동 역(2013), 『문자의 원리』, 연세대 출판부]
- 김방한(1992),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 김진우(1985), 『언어 -그 이론과 응용』, 탐출판사.
- 김하수·연구동(2014), 『세계 문자의 발달』(가제), 커뮤니케이션북스. (준비중)
- 박창원(2011), 『한글박물관』, 책문.
- 배보은(2004), 문자의 자질에 대한 연구, 경남대 석사 논문.
- 배보은(2009), 문자론 용어 문제에 대하여,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175-216.
- 배보은(2013), 문자론 용어와 문자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 박사 논문.
- 연구동(Gyudong Yurn)(2014), Meanings of Writing, 『언어학』 68, (사)한국언어학회.
- 연구동·이전경(2012), ‘문자’ 관련 어휘의 사전 기술, 『한국사전학』 19, 한국사전학회, 91-133.
- 연구동·이전경·김은희·김남시(2012a),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文字’의 의미, 『동방학지』 158, 연세대 국학연구원, 143-182.
- 연구동·이전경·김은희·김남시(2012b), 조선왕조실록 국역본에 나타난 ‘文字’의 번역 문제, 『인문과학』 96,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45-65.
-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 개정판, 학연사.
-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2013), 『문자개념 다시보기』, 연세대 출판부.
- 허웅(1981), 『언어학 -그 대상과 방법』, 샘문화사.

9) 현대 중국에서 이음절 단어가 발달하고 있다거나 伊妹儿, 奥巴马와 같은 소리를 옮긴 외래어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자가 점점 음절문자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어문자에서 음절문자로 변화하는 문자의 발달 단계와도 부합한다.